

碩士學位論文

早期 피아노 教育의 必要性과
效果的인 指導 方法에 대한 研究

指導教授 李 春 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金 仁 愛

2000년 8월

早期 피아노 教育의 必要性과
效果的인 指導 方法에 대한 研究

指導教授 李 春 起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日



提出者 金 仁 愛

金仁愛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년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김 인 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춘 기

아동들이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손가락과 작은 근육운동의 발달로 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적인 성장도를 자극하여 지적 능력과 좋은 정서 함양을 이루게 한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기초 지식을 조사하고 제주시 지역에 있어서 아동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환경, 효과적인 피아노 지도 방법,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아노 교육은 아동들의 음악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은 보다 정확한 절대 음감을 가지게 하고, 아동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음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익히고 표현하며 많은 명곡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동의 피아노 교육을 위하여 교사와 부모가 인지하여야 하는 요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 요점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나이는 6~7세이다.
2.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아동들이 피아노를 치는 법을 알고 있다.

3. 초등학교의 저학년 학생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지만 고학년은 많은 과외활동과 효율적이지 못한 교수법으로 인한 흥미의 상실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그만 두고 있다.
4. 부모들이 아동의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면 아동은 피아노를 배우는데 싫증을 느끼게 되며 학습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조기 피아노 교육	3
1. 조기 음악 교육의 인지 발달 단계	3
1) 감각동작기(sensory-motor stage)	5
2)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	5
3)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	6
4)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	6
2. 음악교육과 감각 능력 발달	8
1) 감각의 발달	8
2) 운동 감각의 발달	8
3) 지각의 발달	9
3. 조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	10
4.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	12
5. 조기 피아노 교육의 요건	16
1) 피아노 학습 시기	16
2) 피아노 학습 시간	17
3)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17
4) 그룹레슨	19
5) 동기유발	20
III. 피아노를 통한 조기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21

1. 학교, 음악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 방법 조사 분석	21
2. 피아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 조사 분석	26
3. 단순 기능 위주의 교육	31
4. 독보, 초견, 암보	32
5. 연주자세 및 테크닉 훈련	34
VI. 초기 피아노 교육의 지도 방법	37
1. 교사의 자세와 지도시 유의점	37
2. 교재선택 및 유의점	38
3. 올바른 자세	41
1) 앉는 자세	41
2) 손모양	42
4. 첫레슨	46
5. 독보력	49
6. 시창과 청음	55
1) 시창	55
2) 청음	56
7. 초견	57
8. 창작 및 즉흥 연주	58
9. 테크닉 훈련	59
V. 결 론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6
부 록	78

표 목 차

<표 1> 초기 피아노 교육의 시기	21
<표 2> 초보자 첫시간 교육	22
<표 3> 피아노 학습시간	22
<표 4> 아동들의 집중력 시간	22
<표 5> 초견 연주 교육	23
<표 6> 이론과 실기 교육 시기	23
<표 7> 암보의 교육	24
<표 8> 동기 유발 유형	24
<표 9> 전반적인 피아노 교육 미실시 이유	25
<표 10> 피아노 교재	25
<표 11> 피아노 조율관리	25
<표 12> 교육 환경 조성	26
<표 13> 피아노 연습시간	26
<표 14> 피아노 교육을 시키는 이유	27
<표 15> 초기 피아노 교육을 하는 이유	27
<표 16> 피아노 교육이 전인교육의 기여도	28
<표 17> 피아노 교육 기간	28
<표 18> 피아노 교육과 학교 음악 성적과의 관계	29
<표 19> 피아노 발표회 회수	29
<표 20> 피아노 교육기관 선택 기준	29
<표 21> 가정의 음악적 환경 조성	30
<표 22> 학습실의 시설 환경	30
<표 23> 이상적인 피아노 교사상	31

그림 목 차

<그림 1> 올바른 피아노 앞의 자세	43
<그림 2> 손모양	44
<그림 3> 이상적인 손의 위치	44
<그림 4> 두가지 손의 자세	45
<그림 5> 손과 팔의 자세	45
<그림 6> 5선 없이 기보된 선율	47
<그림 7> 첫 레슨에 적합한 테크닉	48
<그림 8> 리듬훈련 예표	50
<그림 8-1> 리듬훈련 예표	51
<그림 8-2> 리듬훈련 예표	53
<그림 9> 잘못된 손가락 위치	60
<그림 10> 바른 손가락 위치	61
<그림 11> 3화음을 치는 손의 바른 위치	61
<그림 12> 건반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버틴다.	62
<그림 13> 건반에서 손가락 세우기	63
<그림 14> 레가토 타건법을 위한 초보 훈련	64
<그림 15> 흰건반에서 다섯 손가락 위치를 사용한 레카토 연습.	64
<그림 16> 스타카토 터치에 대한 초보 연습	64
<그림 17> 선율과 반주부의 균형에 대한 공부	65
<그림 18> 손목을 낮게 한 위치	66
<그림 19> 손목을 높게 한 위치	66
<그림 20> 손목의 움직임에 지시하는 화살표	66
<그림 21> 이음줄 연습	67
<그림 22> 손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한다.	67
<그림 23> 3도의 레가토 연습곡	68
<그림 24> 3도 레가토에 대한 손의 위치 중 처음 3도	68
<그림 25> 3도 레가토의 손 위치 중 두 번째 3도	6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취학전후 아동들의 예술교육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음악교육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교육 중에서도 특히 음악분야의 피아노 교육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일반 상식화되면서 아동의 지능 발달이나 지적, 정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기교육이 강조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음악교육 중에서도 피아노 교육은 현재 가장 보편화된 음악교육이며, 보다 기초적이고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기교육에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에 비하여 음역이 넓고 고저음을 모두 다룰 수 있으며 건반과 악보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다. 다른 관·현악기나 타악기에 비해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이며, 효과적이며 음역이 넓어서 표현범위가 넓고, 고정악기이며 또한 음악의 3요소인 멜로디, 화성, 리듬을 한 악기로서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서 반주 악기이다

또한 오른손, 왼손, 페달 등을 동시에 사용하여 가락, 리듬, 화음, 다이내믹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음악적 감각 터득 및 지적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됨에 따라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 교육이 음악의 조기교육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 피아노 교육은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필수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조기 피아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음악학원, 일부 초등학교의 특기 · 적성

교육(피아노), 개인 교습소 등을 꼽을 수 있으나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전공자가 피아노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열악한 시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자세, 리듬, 박자, 악곡 상의 기초교육의 잘못된 지도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은 건전한 인간의 발달과 육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아동의 나이와 신체와 감성의 발달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동으로 능력을 길러주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기여하며 음악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것이 조기 피아노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도입기의 아동들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아동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자의 학원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질, 학습실의 시설, 환경, 학부모의 피아노 교육의 관심도, 제주시내 학원, 학교의 피아노 교육의 실태 등이다. 연구 방법은 피아노 교육에 관한 각종 문헌, 관련 논문, 음악잡지, 음악신문으로 선행 연구를 하고 아라음악학원생, 아라초등학교 1~4학년생 대상 학부모의 설문조사, 제주시내 초등교사 및 학원강사 대상 설문조사와 연구자의 지도 경험을 적용시켜 실증연구를 하였다.

Ⅱ. 조기 피아노 교육

1. 조기 음악 교육의 인지 발달 단계

최근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아동들의 예술교육이 크게 부각되고 음악 교육 또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교육 중에서도 조기 음악교육은 후일의 인격도야와 음악미의 추구·표현기능을 길러주는 것으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음악교육은 지적교육이나 신체적교육 또는 사회적 훈련등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전인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¹⁾ 전문가를 만들거나 연주를 만들기 이전에 음악을 통해서 생활 전체를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 음악의 조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아노를 통한 음악교육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피아노의 조기 교육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처음부터 바로 피아노 실기와 기보법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피아노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아동들은 기보법을 이해해야 된다고 아울러 박자, 리듬, 음정 등의 추상적 개념과 건반의 위치, 바른 연주 자세, 손끝의 감각 등의 육체적 기능을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는 다소 벅찬 부담을 안고 피아노 학습을 시작, 진행해 나간다.

점차 학습이 진행될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부담은 가중되어 결국 피아노에 싫증을 느끼고 그만두기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아동들이 기보법을 통해 박자와 리듬의 개념, 음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숙달되기까지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하며,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근육 조절을 통한 신체 움직임을 동시에 학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덕희, 「음악 교육론」, 개문사 1983, P.13

즉,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의 경우와 음악의 기초적인 능력(박자, 리듬감, 음감, 기보법의 이해)을 양성하기 전에 바로 피아노 학습을 시작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히 Zoltan Kodaly(1882~1967)는 악보를 읽고 시창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악기 교습을 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아동들은 Piaget의 인지 발달론에 의하면 대부분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의 아동들로서, 이때는 청각각과 신체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아직까지는 가역적 사고 및 추상적 사고 능력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기보법이라는 상징 체계를 통하여 리듬과 박자, 음정 및 음고 등의 추상적 개념을 인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인지발달이란 인지구조의 지속적인 질적 변화의 과정인데 Piaget는 인지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였다.²⁾ 그러나 이 단계들은 불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발달 과정의 개념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흐름을 편이상 나누어 놓은 것이다. 각 발달단계는 그 출현하는 차례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고 발달은 소극적인 방법에 따른 지속적인 흐름으로써 새로운 단계는 앞의 단계와 종합된다.

합리적인 단계적 교육을 위해 Piaget의 인지 발달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지능은 유전적이거나 환경적 작용에만 의해서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능동적이며 조직적 활동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Piaget는 아동이 능동적으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음악 활동을 통한 교육, 즉 아동으로 하여금 자발적·자주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음악 교사로 하여금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즉 교육과정은 아동이 계속되는 지적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이 아동의 개념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학습은 비효과적이 될 것이므로

2)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70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음악의 기본적 개념을 어느 때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Piaget는 아동의 수, 장소, 인간관계와 같은 개념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획득되고 발전되어 가는가의 과정을 밝혔다. 이것은 음악의 어떤 개념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 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Piaget는 주로 유아기 아동 발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조기 교육에 의해서 발달 단계에서의 질적 내용이 풍부해 진다고 주장하여 음악의 조기 교육이나 영재 교육, 유아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과 지도 방법의 창안 및 자료 활용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인지 능력 발달 단계에 맞춰 학습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들이 음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배우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단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단계를 무시한 학습은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단계별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Piaget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음악 학습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³⁾ 이는 다음과 같다.

1) 감각동작기(sensory-motor stage) : 1단계(0~2세)

이시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감각 작용이다. 이 시기에 운동신경, 근감각 등과 함께 청각각이 발달하는데, 생후 2개월경부터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며, 5개월 전후에는 음악을 듣고 느낌을 몸짓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유아의 청각각에 관심을 갖고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아동의 음악적 감각에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⁴⁾ 유아의 음악적 체험은 흔히 부모

3) 정원식·이상노·이성진 공저, 「현대교육 심리학」, 교육 출판사, 1988, P.65.

4) 김후작, 「효율적인 초기 피아노 교육법」,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

의 품안에서 음악적인 느낌에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일부부터 시작하며, 따라서 유아와 부모가 함께 음악을 듣고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흉내내어 보거나,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놀이를 통해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유아에게는 좋은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⁵⁾

2)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 : 2단계(2~7세)

언어의 출현으로 영상, 언어 등의 상징 체계를 통한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논리적 사고는 불가능하므로 전조작기라고 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청각감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하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음악적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게 되면, 소리의 셈여림, 음높이, 음길이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이 시기가 음악적 능력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각감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⁶⁾ 연령별 음악적 능력을 살펴보면, 3~4세의 아동들은 노래와 리듬을 흉내낼 수 있고, 4세경의 아동들은 짧은 문장을 기억할 수 있고, 짧은 멜로디를 모방할 수 있다. 6세의 아동들은 소리를 기억하고 배운 것을 반복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Folk Song을 쉽게 부르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아동들은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아동들에게는 노래 따라 부르기, 흐름결에 따라 박수치기, 노래의 빠르기에 따라 걷거나 뛰기 등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신체 동작을 통하여 음악을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신체동작을 수반한 음악놀이 등을 통하여 청각감과 반응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 : 3단계(7~11세)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7세경의 아동들은 음악의 셈여림, 음색, 빠르기를 구별

5) 이홍수, 「진계서」, P.77.

6) J.Mursell,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세광 음악 출판사, 1989, P.51.

할 수 있고 화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지므로 리듬과 멜로디의 공부는 이 기간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이 기반이 마련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청각각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또 수 개념이 9세에서 점차 발달하여 10세에서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활용이 용이하고 손의 근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무리 없이 피아노를 다룰뿐더러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동들의 청각각을 자극하는 음악 놀이나 악보 읽기 및 쓰기 등과 함께 피아노 학습에 필요한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피아노 학습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11세경이 되면 아동들은 집단에의 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된다.⁷⁾

4)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 : 4단계(11~15세)

이 시기는 음악을 통하여 지적인 창조성에 이르는 과정이 풍부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악기를 통한 음악적 경험을 하여도 좋고, 감상을 통해 음악과 항상 접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고의 논리적 조작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가설적 언어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과학적 추리와 가설 설정,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등 고도의 추상적 사고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의 교육은 음악적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고, 섬세하게 곡의 구성이나 구조를 이해시키는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음악의 여러 이론들의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의한 음악 학습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각 아동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음악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각 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학습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

7) 이용일, 「음악 교육학 개설」, 현대악보출판사, 1989, P.33.

8) 이홍수, 「전계서」 P.79.

므로, 올바른 학습이론의 정립과 각 단계에 맞는 학습내용의 체계적인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5~7세의 아동들은 전조작기의 아동들이는데, 아직은 근감각의 발달보다 청감각과 반응력의 발달이 두드러지므로 본격적인 피아노 교습보다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리듬 교육, 음감 육성에 주력하여 음악의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학습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피아노 교습은 위와 같은 능력을 양성하여 음악적 기본 능력과 기보법을 숙지한 후, 근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는 구체적 조작기인 8세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단계라 하겠다.

2. 음악교육과 감각 능력 발달

1) 감각의 발달

유아는 사고력이나 표현력이 불확실한 반면 감각 기능은 일찍부터 발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 능력 중 그 발달 시기가 가장 빠른 감각이 곧 청각이다. 또한 음악 기술에 직접 관계가 있는 감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청각과 운동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각은 시각에 비해 그 분화가 빠르며 생후 2개월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를 판별할 수 있게 되며 5~6개월 후엔 음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⁹⁾

그 후 음의 판별 능력은 급속하게 발달하며 8~10세경에 정점을 이룬다.¹⁰⁾ 따라서 이 시기에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음악적 기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운동 감각의 발달

음악의 기본적 요소인 리듬 지각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운동감각이다. 이 감

9) 안종배 편역, 「음악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1, P.59.

10) 이용일, 전개서, P.29.

각에는 시각, 평형감각, 청각 등과 같은 공간 인지의 모든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¹¹⁾ 유아는 어느 정도 근육운동이 발달되어 있음을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규명해 보았듯이 이러한 운동감각에 직접 관계가 깊은 것은 근감각이며 이 근감각에 작용하는 것을 이른바 운동 신경이라고 한다. 운동 신경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근운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근운동에 좌우되는 리듬 지각도 불안정하게 된다.¹²⁾

운동감각은 그 시기를 놓치면 성장은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피아노 학습을 통한 양손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 등으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 발달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의 실천면에서 유의할 것은 운동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듬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가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감각의 발달을 고려하여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피아노 학습지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각의 발달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감각 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음악이나 음악 학습에서 경험한 내용이 거의 모든 것이 청감각 기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각에 의지하는 것이다.¹³⁾

이 지각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에 모든 감각의 발달에 따라 정점에 달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환경, 경험, 노력 등에 의해 그 발달의 축진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지각은 감각과 달리 적절한 지도가 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음악 교육적인 면에서 정리해 보면 구체적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¹⁴⁾ 첫째, 지각은 감각의 작용 없이는 그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 학습 지도에서는 음악적 성장의 기초로서 감각적 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감

11) 유덕희, 「음악교육론」, 개문사, 1983, P.52.

12) 안중배, 전개서, P.61.

13) 안중배 편역, 「음악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1, P.62.

14) 이용일, 전개서 P.33.

각이나 지각, 혹은 촉각 등의 재생 기억이나 심정적 경험은 현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음악의 표현과 악곡의 정서에 대해 획일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

3. 조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

음악교육을 시작하는 아동들은 주로 5~7세의 아동들이며 대다수가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의 아동들이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바로 피아노를 시작하는 것과 기보법을 통하여 여러 음악 요소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아노에 대한 흥미 반감, 싫증 및 중도 포기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

Kodaly는 악기의 연주 활동은 악보의 시창 능력을 갖춤으로써 가능하다고 했으며, 악보를 읽고 시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악기를 지도하지 않았다.¹⁵⁾ 이것은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의한 학습 단계로 볼때도 타당한 주장이 된다.

악보를 읽고 시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음정, 음고, 리듬, 박자, 조성감 등의 개념적 이해와 확실한 음감이 확립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시창이 된다는 것은 음악 요소들의 개념에 관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기보법이라는 상징 체계를 이해하며, 음악의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능력을 갖게 한 다음, 피아노에 대한 본격적인 교습이 이루어져야 학습의 효과가 클뿐더러, 아동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피아노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기보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조기 교육에 있어서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음악 교육, 즉 여러 음악 요소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기보법의 이해 및 숙달,

15) 이홍수, 전게서, P.350.

음감육성을 위한 교육은 상당히 부족하므로 시작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적게는 4세에서 많게는 8~9세의 연령층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Piaget 인지 발달론의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에 속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논리적, 추상적 사고는 불가능한 시기이므로 본격적인 음악 교습보다는 청각각과 리듬 지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신체 동작을 통해 박자, 리듬, 음정의 개념을 감각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후에 확실한 음감의 육성과 기보법의 이해 및 숙달을 위해 체계적인 솔페이즈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으며, 이를 통해 음악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 후에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통해서 볼 때, 조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실례로 Jaques-Dalcroze(1865~1950, 스위스, 음악교육 학자)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Jeques-Dalcroze는 아동들의 음악 학습 체계를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첫째,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 동작을 통해 음악 표현(리듬, 음정, 박자)을 체험하도록 하는 'Eurhythmics'. 둘째, '악보를 보며 계명으로 부르기'로서 이것은 음정, 가락, 화음, 음계, 선법, 대위법, 즉흥 노래 표현 등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으로 확실한 음감의 확립과 기보법의 이해를 도모했다. 셋째, '즉흥 연주'로서 음악의 여러 요소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익히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Zotan Kotaly(1882~1967, 헝가리)의 방법을 살펴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뛰기, 걷기, 발굴리기 등을 통한 박자 개념을 통해 리듬을 익히며, 그 다음은 Hand sign으로 음정과 음고의 개념을 익히며, 이후에 기보법을 익히고 완전한 음감과 계명창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기보법을 통한 시창이 가능할 때 본격적인 악기 교습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Carl Off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리듬에 맞춰 말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동작을 통한 음악표현, 즉흥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Dalcroze, Kodaly, Orff등의 교육 체계는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보다 자주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

음악을 우리 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게 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면서 피아노는 어릴 때부터의 악기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일찍 시작하는 음악은 아동들에게 정서발달은 물론 지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며 후에는 미적 감각이나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¹⁶⁾ 이러한 일환으로 피아노 교육은 가장 보편화된 음악교육으로 종합적인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음악교육도 예외는 아니며 피아노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기초를 익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이고 체계 없는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서 피아노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피아노 조기교육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 피아노의 특징을 알아보자.

첫째, 피아노는 음악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역의 소리를 낼 수 있어 현악기나 관악기에 비해 넓은 음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둘째, 쉽게 어디서든지 준비 없이 만져 볼 수 있고 특별한 기초적인 이론 없이도 자연스럽게 음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음정을 잡아나갈 수 있다.

셋째, 단성 내지 다성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어 멜로디와 화음을 구체적으로 이

16) 박찬석,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85.

해하기 쉬우며,¹⁷⁾

넷째, 건반과 악보가 연계되어있어 이해와 설명이 쉽다.

다섯째, 피아노의 혼이라 불리는 페달이 있으므로 피아노를 배우는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과 함께 피아노를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아동들에게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깊은 흥미를 유발시키고 악보에 관한 학습을 쉽게 해주며 일정한 음고(고정음)로 인해 절대음감과 화음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 규칙적인 연습 등으로 인해 인내력, 자제력 등의 이성적 성품을 기르게 되어 정서교육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각·청각·촉각의 감각을 다 발달시킬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이며 피아노 교육은 음악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청각기능이 6세 경에 이미 성인의 수준에 이르고 절대음감이 3살부터 지도 받은 유아는 90%, 4살의 경우는 80%, 5살 경부터는 20%로 보아질 때¹⁸⁾ 예술 분야에서 음악적 능력의 기초는 이미 유아기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조셉 호프만(Joseph Hoffman, 1876~1957. 폴란드 출생의 피아니스트)은 조기 교육에 대하여 “모든 음악적인 훈련을 쌓은 시기를 유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보다 빠른 연령에서 올바른 음악 교육만 쌓으면 훌륭한 음악가로 대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⁹⁾

아동기는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능률적인 시기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나 정서교육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육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음악은 본래가 아름다운 것이며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서나 감각이 계발되어 바람직한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헝가리 음악교육가인 Kodaly는 4세에서 7세까지

17) 주영옥, 피아노 교육이 모든 음악 기초적 단계가 되는가?, 음악교육, 1989. 6월.

18) 유덕희, 「음악교육학개론」, 학문사, 1973

19) C.E.Seashore. The Psychology of MUSIC Talent, New york : Silver Burdett Co. 1919.

의 유아기야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불어넣어 주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확신했으며 아동의 일생에 결정적인 음악적 경험은 6세에서 16세 사이에 얻어지며 이때가 더 나이 들어서 보다 쉽게 배우고 재능도 잘 늘어난다고 하였다.²⁰⁾

그러면 음악의 광범위한 세계속에서 피아노 조기교육의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음감의 발달이 빨라지므로 절대음감을 가질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근육의 이완상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와 손 모양의 기초를 익힐 수 있으며 유연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음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기 때문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익힐 수 있고 표현하게 된다.

넷째, 많은 곡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피아노 조기교육은 필수과정처럼 되어가고 있고 유아기 때가 절대음감을 가질 확률이 크고 음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교육은 피아노 기술습득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보다 좋은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가까이하여 폭넓은 음악교육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조기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이처럼 조기에능 교육은 음악적 능력개발과 발전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유아나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은 전적으로 교사와 부모에 달려있다. 개개인의 이해력이나 집중력을 고려할 때 어느 연령에서 음악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할 수 없으며 각 아동의 개인적 여건을 세심히 관찰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피아노의 대가 또는 피아노 학습을 통하여 작곡가로 대성한 몇몇 음악가의 유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조흥기(역), Erzebet Szonyi, 「코다이 음악교수법」, 1994. P.44

(1) 바하(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근대 서양음악의 아버지로서 당대 제일의 오르가니스트이며, 불후의 작곡가인 바하는 그의 가정환경에 따라 일찍이 음악교육을 받았고 15세 때는 미하엘학교의 합창단원이었으며 18세에는 이미 교회의 전속 오르가니스트이었다.

(2) 헨델(Gereog Friedrich Handel 1685~1791)

바하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많은 오라토리오를 남긴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었다. 법률가로 남길 원했던 그의 부친은 피아노 공부를 반대하였으나 헨델은 숨어서 피아노를 연습하였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의 집념으로 계속하였다.

(3)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음악사에 찬연히 빛나는 모차르트는 4세 때부터 피아노학습을 시작했고 6세에 이미 궁전에서 공개연주회를 갖을만큼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다. 조기교육의 좋은 본보기이라 할 수 있다.

(4)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인간 최고 예술의 금자탑을 세운 고전음악의 대가이며 낭만음악의 선구자이고 피아노음악에 관현악의 세계를 이식한 소나타형식의 구사자이자 완성자이다. 유년기에는 신동 모차르트의 재출현을 꿈꾸는 부친의 욕망으로 4세부터 하루에 4,5시간의 피아노 연습을 강요당했다. 그 후 베토벤의 음악활동을 보아도 신동 모차르트에 비견되는 조기교육 성공의 한 예가 된다.

(5) 슈베르트(Franz Schubert 1808~1878)

가곡의 왕이며 낭만파음악의 중심인물인 그는 9세 때 신학교의 가동(歌童)이 되었고 13세에 작곡 발표를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6) 리스트(Robert Liszt 1811 ~ 1886)

피아노음악의 귀재(鬼才)로서 바이올린의 파가니니처럼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피아노음악의 기술적인 면을 극대화시킨 그는 부친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에 상당히 정통했던 관계로 6세 때부터 정식 피아노교육을 받았으며 9세 때 피아노 공개연주를 통하여 극찬을 받음으로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게 한다.

5. 조기 피아노 교육의 요건

1) 피아노 학습 시기

피아노학습의 입문시기는 다섯 가지 수를 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음악에 접하여 콧노래를 부르고 음악의 매력을 어느 정도 지각할 때에는 음악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해도 좋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피아노를 이용한 음악의 기초학습은 우선 열 개의 손가락으로 건반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일과 악보 읽기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인데 4세에서 7세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입문시기라고 본다. 또한 이때는 음감이 가장 잘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리듬·가락·화음을 잘 감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음악교육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들의 가장 바람직한 피아노 입문시기는 7세에서 9세 때이다.²¹⁾ 이때가 되어야만 아동들이 인지적 능력의 발달로 음악적 가락을 교육할 능력이 생기므로 멜로디의 반복 또는 Phrase의 구성과 리듬·화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피아노를 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손가락의 근육과 팔·어깨 근육이 발달하는 시기는 말초신경이 가장 발달하는 8세에서 11세 사이에 본질적인 테크닉과 트레이닝이 가능하다고 본다.

21) 송정이(1996). op.cit. P.82

보통의 학부모들은 4세에서 7세 사이가 피아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후 한글을 깨우친 후나 혹은 아동들이 원할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도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동들의 발달능력단계나 집중력·학습진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연령이 음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는 아직도 분명히 말할 수 없고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2) 피아노 학습 시간

조기교육은 아동이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교습 내용을 여러 번 되풀이하거나 서서히 지도하여 무리가 없게끔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아동의 경우 흥미 있는 놀이라도 주의력 지속 시간이 3세 때에는 5-13분, 4세 때에는 13-24분 정도라고 한다. 주의력의 범위는 연소한 아동은 오직 한가지 뿐이고 6세 때에는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2-3개의 일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은 주의력이 약해서 30분 이상의 집중이 어려우며 아동의 반응여하에 따라 틀리기는 하나 적절한 시간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습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피아노연습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사가 피아노를 치고 아동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던가 그림으로된 이론 책으로 이론을 공부한다던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한층 더 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습시간에 배운 것을 집에 가서는 다시 공부하도록 가정에서의 연습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3)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어떤 교육에서나 마찬가지로이듯이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음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수적이며, 교사로 하여금 지적·사회적·심리적·음악적 가능성을 아동들에게 포괄적이고 조화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좋은 학습장을 만들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환경면·악기면·교구면을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자.

첫째, 환경 면을 살펴보면, 개인레슨실과 그룹 레슨실, 감상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피아노가 바탕이 되어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장에는 필히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악기 면을 살펴보면 우선은 조율이 잘된 피아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디지털 피아노와 신디사이저등의 전자 악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전자악기를 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자 악기의 리듬반주를 이용함으로써 리듬감과 박자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피아노만 계속해서 칠 경우의 지루함을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악기의 특성을 살려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 다른 많은 악기의 음색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악기 상호간의 조화로운 음 배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악기 이외에도 리듬악기(큰북, 작은 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등을 비치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더욱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근감을 더 해 줄 수도 있다.

셋째, 여러 가지 교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시판을 설치해 악보를 이용해서 음정·보표·그 외에 이론적인 내용을 항상 보게 한다면 더 쉽고 더 빨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비가 잘 된 레슨실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학습이 능률적이며, 교사의

지도면에 있어서도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4) 그룹레슨

피아노 지도 방법에 있어서 예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룹레슨방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룹레슨의 장점은 함께 공부함으로써 음악을 연구하는 즐거움이 훨씬 증가하고 망설임 없이 쉽게 극복되며, 지도하는 교사들이 비판과 비교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인간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발전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심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²²⁾

그룹레슨은 개인레슨에서 흥미를 잃어버렸거나 특별히 높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아동들을 가르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거의 같은 나이의 비슷한 소질의 아동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그룹레슨은 다른 아동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음악을 좀더 의욕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도 그룹레슨의 중요한 점은 피아노를 통한 음악교육이라는 점이다. 개인레슨은 피아노 교육에 그 중점이 놓여지지만 그룹레슨은 그 그룹이 크면 클수록 그 초점이 피아노를 통한 음악교육 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그룹 레슨은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기도 하고 자기 연주를 들려줌으로 해서 연주를 통해 자기 표현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으며, 피아노 대신 무성 건반, 컴퓨터, 비디오 등을 이용해 다른 각도에서 음악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다른 아동들과 같이 노래하거나 피아노 앙상블을 할 수 있어 음악을 폭 넓게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음악교육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이 레슨 방법은 일주일에 레슨시간을 3회로 한다고 볼 때 2회 정도는 개인레슨을 하고 나머지 1회는 비슷한 실력의 제 또래의 아동들과 그룹레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룹 레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교육이 단체교육임을 고려할 때 잘 따라오는 아동들에게는 더

22) Wilhelm Gebhardt, 「음악에로의 교육」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개인 레슨 때보다 더 힘들고 하기 싫은 교육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뒤쳐지는 아동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5) 동기유발

아동들이 피아노 교습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피아노와 함께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해야 처음 가진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 교사 또한 피아노를 가르칠 때 아동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것이 큰 임무중의 하나일 것이다. 피아노레슨을 시작하면서 교본에 의한 실기를 처음부터 가르치기보다는 인체를 이용한 손뼉치기, 다리 치기, 손바닥 비비기, 발구르기, 이야기 나누기 등의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음을 탐색하여 본다든지 피아노 소리의 빠르고 느림에 맞추어 뛰고 걸어보게 하는 등 레가토와 스타카토 등을 실제로 아동들에게 적용시켜 직접 해보면서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한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리를 노래하거나 콧노래로 흥얼거리다가 곡이 익숙해지면 가락을 마음으로 부르며 피아노 음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곡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며 합주연주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려 화음을 이룰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어 더욱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동기유발이 되리라 본다.

Ⅲ. 피아노를 통한 조기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1. 학교, 음악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 방법 조사 분석

현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곳은 초등학교, 학원, 개인 교습소이다.

이곳에서 피아노를 학습하는 실태를 아라초등학교의 피아노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학부모와 연구자의 운영 학원생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사 및 음악학원 강사 1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표 1〉 조기 피아노 교육의 시기

피아노 조기교육의 시기는?	인원수(명)		비율(%)	
	교사 및 강사	학부모	교사 및 강사	학부모
5세	8	9	8	9
6세	49	46	49	46
7세	38	36	38	36
8세	3	6	3	6
8세이후	2	3	2	3
계	100	100	100	100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교사 및 강사와 학부모 모두가 고른 분포로서 6·7세부터 조기 피아노 교육의 시작 시기로 느끼고 있다.

〈표 2〉 초보자 첫시간 교육

초보자 첫시간 교육 내용은?	인원수(명)	비율(%)
피아노 실기	23	23
악전 및 솔페이즈	19	19
실기와 악전모두	44	44
상기 모두	14	14
계	100	100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아동들에게 첫시간부터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설문은 실기와 악전을 동시에 가르친다는 응답이 44%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체계적인 이론공부를 시킨 후에 점차적으로 실기와 악전을 시켜 아동의 흥미 유발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요구 된다.

〈표 3〉 피아노 학습시간

피아노 학습시간은?	인원수(명)	비율(%)
30 ~ 40분	39	39
40 ~ 50분	36	36
50 ~ 60분	23	23
1시간 이상	2	2
계	100	100

〈표 4〉 아동들의 집중력 시간

피아노 지도시 아동들의 집중력 시간은?	인원수(명)	비율(%)
10 ~ 20분	41	41
30분	42	42
30 ~ 40분	17	17
40분이상	1	1
계	100	100

제주시내 학교,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학습시간은 30~40분이 39%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응답이 나왔으나 보통 기초 피아노 교습시간은 30~40분으로 하여 중간 중간에 노래를 하거나 노래에 맞추어 지휘를 하여 보거나 하는 등 흥미를 갖게 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동이 흥미가 없이 집중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학습의 효과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하루에 2~3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등 보다 융통성있는 학습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가르치는 아동들의 집중력 시간을 물어본 결과 교습시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짧은 10~30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5〉 초견 연주 교육

초견연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인원수(명)	비율(%)
거의 안한다.	11	11
초기에는 조금 했으나 계속하지 않는다.	19	19
계속한다.	39	39
가끔한다.	31	31
계	100	100

피아노를 학습중인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초견연주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표 5>에서 살펴 보면 계속한다는 응답이 39%이나 초기에는 조금 했으나 계속하지 않는다 19%와 가끔 한다는 31%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초견훈련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6〉 이론과 실기 교육 시기

이론지도와 실기 지도 시기는?	인원수(명)	비율(%)
같이 시작한다.	66	66
이론지도후 2~3일후 실기 시작	14	14
이론지도후 1주일 정도에 실기 시작	8	8
이론지도후 1주일 후 실기 시작	12	12
계	100	100

피아노를 교습하는 아동들에게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시키는 시기를 알아본 결과 동시에 시작한다는 응답이 66%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외의 응답은 이론교육을 마친후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암보의 교육

암보의 지속적 교육은?	인원수(명)	비율(%)
거의 안한다.	16	16
필요에 따라 한다.	54	54
지속적으로 한다.	30	30
계	100	100

암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지를 알아보면 필요에 따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어 지속적으로 훈련 시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동기 유발 유형

동기 유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인원수(명)	비율(%)
노래 부르기	45	45
손뼉치기	37	37
이야기 나누기	11	11
기타	7	7
계	100	100

피아노 학습자의 동기유발의 방법에 대하여 설문 조사로 알아본 결과 특별한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노래부르기, 손뼉치기, 이야기 나누기, 기타 순으로 동기유발을 위한 음악교구 사용이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9〉 전반적인 피아노 교육 미실시 이유

초견, 솔페이즈, 암보, 조옮김, 연주 등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이유는?	인원수(명)	비율(%)
시간적 제약	44	44
이론적 바탕 부족	29	29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0	0
구체적인 교수방법 및 교구의 부재	27	27
계	100	100

초견, 솔페이즈, 암보, 조옮김, 연주 등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인 제약이 44%로 가장 많았고 이론적 바탕 부족 29%와 구체적인 교수 방법 및 교구의 부재 27%는 일부교사의 의식부족과 실력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표 10〉 피아노 교재

사용하는 피아노 교재는?	인원수(명)	비율(%)
바이엘	51	51
알프레드	10	10
클레스	18	18
툼슨	2	2
기타	19	19
계	100	100

제주시내 학교, 학원, 교습소에서는 바이엘 교재를 51%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새로운 교습법의 교재 사용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피아노 조율관리

피아노 조율은 얼마만에 하는가?	인원수(명)	비율(%)
6개월	26	26
1년	34	34
1년6개월 정도	20	20
2년 이상	20	20
계	100	100

피아노 조율을 하는 간격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년이 34%로 제일 많았으나 1년 6개월 20%, 2년이상 20%라는 응답을 볼 때 다수가 사용하는 피아노의 음정 관리에 낮은 의식을 보이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12〉 교육 환경 조성

피아노 방음에 대한 방법은?	인원수(명)	비율(%)
칸막이 벽 설치	54	54
피아노 자체 방음	17	17
실내벽에 설치	18	18
기타	11	11
계	100	100

방음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다수가 칸막이 벽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아노 자체방음과 실내벽 설치 등으로 미흡한 교육환경을 피하고 있다. 기타 교육 환경 조성에도 성의가 없음을 보여 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2. 피아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 조사 분석

다음은 피아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표 13〉 피아노 연습시간

아동이 피아노 연습을 했으면 하는 시간은?	인원수(명)	비율(%)
30 ~ 40분	58	58
50 ~ 1시간	35	35
1시간 ~ 1시간 30분	6	6
1시간 30분 이상	2	2
계	100	100

제주시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피아노 학습 희망 시간을 설문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30~40분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0분~1시간도 35%를 차지하였으나 교사 및 학원강사의 설문지의 높은 비중의 피아노 교육의 학습시간하고 비슷한 시간(30~50분)으로 아동들의 집중력 등을 감안 30분~1시간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14〉 피아노 교육을 시키는 이유

왜 피아노 교육을 시키십니까?	인원수(명)	비율(%)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7	57
피아노를 전공 시키려고	0	0
두뇌 계발에 좋을 것 같아서	28	28
아동이 원해서	15	15
계	100	100

〈표 15〉 조기 피아노 교육을 하는 이유 중앙도서관

왜 피아노 교육을 일찍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명)	비율(%)
양손 사용의 두뇌 계발	39	39
아동의 정서와 감성교육을 위하여	41	41
재능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3	3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7	17
계	100	100

상기 <표 14>, <표 15>에 대하여 설문을 분석할 때 피아노 음악의 재능과는 관계없이 많은 아동들이 음악에 대한 이해와 두뇌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목적을 갖고 피아노를 배우려는 아동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삶을 풍요롭고 폭넓게 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의 성장과 소득의 증가로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

심과 열정이 더욱 음악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부모들이 조기교육을 시키는 시기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요즘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피아노 실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으나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피아노 교육이 전인교육의 기여도

피아노 교육이 전인 교육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명)	비율(%)
옳다.	73	73
아니다.	0	0
보통이다.	21	21
모르겠다.	6	6
계	100	100

피아노 교육이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학부모는 73%로 압도적이며 보통으로 보는 경우는 21%, 모르겠다는 의견도 6%로 나타났다. 부정적 반응을 보인 학부모는 한사람도 없었다.

〈표 17〉 피아노 교육 기간

피아노는 어느 정도 가르치실 계획인가요?	인원수(명)	비율(%)
초등학교까지만	18	18
중학교 까지만	0	0
본인이 원할 때 까지	80	80
기타	2	2
계	100	100

피아노를 가르치고자 하는 기간을 초등학교까지만 18%로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본인이 원할 때 까지가 80%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8〉 피아노 교육과 학교 음악 성적과의 관계

피아노 교육 중 학교의 음악성적은?	인원수(명)	비율(%)
만족하게 좋아졌다.	18	18
좋아졌다.	69	69
보통이다	10	10
모르겠다	3	3
계	100	100

피아노 교육 중 학교의 음악성적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하게 좋아졌다 18%, 좋아졌다 69%, 보통 10%, 모르겠다 3%를 나타내고 있어서 피아노 음악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 음악 성적에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9〉 피아노 발표회 회수

아동들의 피아노 발표회는 연간 몇회의 개최가 좋은가요?	인원수(명)	비율(%)
1년에 1회	73	73
1년에 2회	9	9
안하는게 좋다.	3	3
교육자측(학원 등)에서 알아서	15	15
계	100	100

아동들의 피아노 발표회는 연간 몇회 개최가 좋은가의 설문에서는 1년에 1회가 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자측(학원 등)이 알아서 15%, 그리고 1년에 2회 요구는 9%를 나타내었고 안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3%가 있었다.

〈표 20〉 피아노 교육기관 선택 기준

피아노 교육의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등의 선택 우선 기준은?	인원수(명)	비율(%)
교사의 실력(학력)	67	67
시설	26	26
수강료	2	2
거리	5	5
계	100	100

제주시내 학부모의 피아노 교육기관 선택 성향은 피아노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음악과의 등의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실력(학력)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육 시설로 26%, 거리 5%, 수강료 2%로 상기와 같은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력(학력)이 있는 교사 밑에서 또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피아노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표 21〉 가정의 음악적 환경 조성

가정에서 음악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인원수(명)	비율(%)
피아노 진도 체크	20	20
함께 노래를 부른다.	60	60
함께 악기 연주를 한다.	13	13
그냥 지켜 본다.	7	7
계	100	100

가정에서 아동의 음악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학부모의 노력은 함께 노래를 부른다. 60%로 가장 높고 피아노 교육의 진도체크가 20%이고 함께 악기를 연주한다는 응답도 13%를 나타내었고 그냥 지켜 본다는 대답이 7%이다. 본 응답으로 유추 하건데 학부모들이 자녀의 피아노 음악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학습실의 시설 환경

피아노 학습실의 시설 환경은?	인원수(명)	비율(%)
연주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3	3
모든 음악적인 교구, 방음장치, 그룹레슨실, 이론 공부실, 개인연습실, 무대연주실 등이 있어야 한다.	87	87
적당하면 된다.	8	8
모르겠다.	2	2
계	100	100

피아노 교육을 받는 학습실의 시설 환경에 대하여는 87%, 다수 학부모들이 좋은 시설 환경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적당하면 된다는 의견도 8% 응답으로 예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3〉 이상적인 피아노 교사상

바람직한 피아노 교사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명)	비율(%)
연주능력이 좋은 사람	20	20
교수 능력이 좋은 사람	43	43
학력이 높은 사람	10	10
아동들이 콩쿨에서 입상 실적이 높은 사람	12	12
상기 모두	15	15
계	100	100

이상적인 피아노 교사상으로 바람직한 피아노 교사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중 교수 능력이 우수한 사람 43% 응답을 하였고 그외 연주 능력이 좋은 사람 20%, 콩쿨 입상 실적이 높은 사람 12%, 학력이 높은 사람 10% 상기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사 15%를 나타내고 있다.

3. 단순 기능 위주의 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페이즈, 초견, 암보, 반주, 조옮김 연주 등 전반적인 교육보다는 레퍼토리나 연주 기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 기능 위주의 교수 방법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단순히 악보를 읽어 내고 거듭되는 반복 연습을 통하여 능숙한 연주 능력을 획득하고, 그 악곡의 능숙한 연주가 가능해지면 또 새로운 악곡을 같은 형태로 학습하고, 이런 학습이 계속 반복 진행되는 것이 현재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근대의 문화, 사회적 환경은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을 과거의 엄격하게 강요된 교수 방법으로는 지도하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굳은 표정으로 오랜 시간을 같은 악절을 되풀이하며 기교만을 강조하던 방법은 그 동안 많은 아동들을 음악교육 도중 탈락하게 만들었다.²³⁾

이렇듯 기존의 단순 기능 위주 교수방법이 수많은 중도 탈락자를 양산해 낸 것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교를 요하는 어려운 악곡이나 대곡들을 훌륭하게 연주해야 한다거나 혹은 자유롭게 반주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나,조를 옮겨 쳐야 될 경우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는 결국 포괄적인 음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고 반복 훈련에 의한 기술 습득과 암기에 의한 아주 한정된 레퍼토리의 연주 능력 배양에 치중해 온 기존 교수법의 모순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기능 위주의 단순한 교수 체계가 이런 결과를 야기하여 수많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음악 자체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성과 응용력을 상실하게 하며, 나아가서 수많은 중도 탈락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독보, 초견, 암보

일부 감각이 뛰어난 아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새로운 악곡을 접하게 되었을 때 독보력이 비교적 약하고 또한 초견연주는 거의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들의 초견연주력이 미약한 경우 그 원인은 첫째, 리듬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이고, 둘째, 덧줄을 사용하고 있는 음표를 빨리 보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

23) 월간 피아노 음악 1984년 3월호. P.28

며, 셋째, 음표들을 기보된 단위 혹은 한 프레이즈 전체로 보지 못하고 음표 하나씩 낱개로 보고 인지하는 경우. 넷째, 악보만 보며 치지 못하고 건반을 보아야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다섯째, 반사신경이 다소 둔한 경우. 여섯째, 복잡한 임시표를 재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²⁴⁾

특히 아동들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은 음표들이 기보된 단위의 덩어리나 프레이즈 전체를 한 눈에 보고 파악하지 못하고 음표를 하나씩 낱개로 보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점에 대해 L.Deutsch는 “타이피스트도 텍스트의 의미를 하나의 전체로서 따른다면 유창하게 타이프를 칠 수 있다. 만일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다면 아무리 타자기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는 key를 발견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이다. 즉, 그의 작업은 유의미한 텍스트를 다룰 때보다 더 느리고 덜 정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동들이 음표의 덩어리들을 기보된 단위, 나아가서 프레이즈 전체를 보고 음악의 흐름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어야 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시선으로 음표 1~2개밖에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견연주는 더디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빠른 시선으로 한 프레이즈 전체를 동시에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Richard A.Magill은 “연습의 양은 그 효과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지만 학습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²⁵⁾라고 연습의 지속성과 양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초견연주는 뛰어난 반사신경과 예민한 감각, 순발력, 뛰어난 소근육조절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존의 피아노 교육은 이점에 대하여 간과해 왔다.

피아노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어떠한 악곡이든지 학습한 정도의 악곡이라면 그 악보를 용이하게 독보할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초견연주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 피아노를 학습하는 즐거움, 음악 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과 음

24) L.Deutsch, 피아노 초견법(태림출판사, 1981), P.39

25) Richard A. Magill Moter Learning, Wm. C. Brown Company, 1990. P.256

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초견연주의 지속적인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암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피아노 교수법에서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암보는 무대에서 연주를 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암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 그것은 진정한 자기 것으로 소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반복연습을 거치면 대개는 자동적으로 암보가 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반복 연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암보를 한 악곡은 자신의 레퍼토리로 축적이 되어 차후에 별다른 연습 없이도 연주해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암보하지 않은 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능숙한 연주 능력을 상실하여 레퍼토리로서 가치가 없게 되므로 암보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암보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피아노 학습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5. 연주자세 및 테크닉 훈련

악기 연주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신체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작업을 행할 경우, 능숙한 아동은 신체의 각 부분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유연한 몸놀림을 보이는 반면, 능숙하지 못한 아동들은 신체 여러 곳에 불필요한 힘이 많이 들어가서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경직되며, 부자연스럽고 또한 힘의 분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다.

피아노 연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능숙한 기교를 획득하지 못한 아동들은 예외 없이 경직되고 뻣뻣한 팔과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연습하고 있다.

올바른 피아노 연주 자세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충분히 이완시키고(Relax),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손과 팔을 사용하며, 팔의 무게로 건반을 누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완(Relaxation)과 팔의 무게 조절로 건반을 눌러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아동들은 팔과 손이 경직된 상태로 연주 및 연습하고 있으며, 팔의 무게로 건반을 누르지 못하고 손가락의 힘만으로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음량이 약하고 소리의 낱알이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높이 치켜올렸다가 타건하게 하며, 양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등의 손가락에만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연주 자세와 기법을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연주 방법은 아동들의 경직을 유발하고, 결국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자세가 몸에 배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많은 고충을 겪거나, 이로 인해 피아노가 늘지 않아 나중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피아노의 연주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스케일, 아르페지오, 옥타브, 중음, 코드, 트릴 등의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어느 악곡이든지 연습곡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주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주 기술들의 항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수많은 Mechanic Exercise Etude들이 존재하며,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설문 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다수는 테크닉을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있으며, Scale이나 Arpeggio 정도만 연습하거나, Hanon을 일부 연습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테크닉의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하겠다.

피아노 연주는 예술이기 이전에 고도의 신체적 기술을 수반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지속적인 훈련 없이는 기술 향상 및 유지가 절대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네이가우스(1883~1964)는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라고 강조하고 리스트는 기술상 어려운 부분을 100번을 반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⁶⁾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훈련 없이는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기에 필요 충분한 연주 기술의 획득은 불가능한 것이다.

러시아의 피아노 전문교육의 터전인 음악원이나 특별 음악학교에서는 연주 기술의 체계적인 훈련과 아울러 청음주법, 조옮김 연주, 앙상블 주법, 간단한 파트연주

26) 박영수, 「피아노 주법 연구」, 세광음악출판사, 1988, PP.307~310

법을 총괄적으로 학습을 시켜²⁷⁾ 피아노를 학습하는 아동들이 연주, 앙상블, 반주 등의 포괄적인 음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음악 학원 및 개인교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기존 피아노 교수법은 반복 훈련에 의한 기술 습득과 암기에 의한 한정된 레퍼토리의 연주 능력 배양에만 치중해 온 단순 기능 위주의 교수법으로서, 제한된 연주 능력만 가진 아동들과 수많은 중도 포기자를 양산해내는 역효과를 초래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교수방법의 구태를 벗어나고 포괄적인 음악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7) 상계서 PP.307~310

VI. 초기 피아노 교육의 지도 방법

1. 교사의 자세와 지도시 유의점

아동이 음악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해 감독함으로써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피아노 교사의 지도역활에는 악보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음감의 개발, 리듬감의 훈련 및 음악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의 학습, 아동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음악적 창의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인간성의 향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²⁸⁾ 폭 넓고 창조적인 피아노 학습은 교사의 지도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도 할만큼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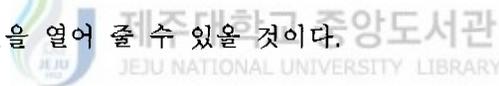
특히 초기 피아노 학습은 소리를 듣고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주입보다는 유도와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피아노 학습 자체를 즐거움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아노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5~6세 가량의 유아의 집중력은 약 13~24분 정도이므로 장시간의 연습 시간이나 레슨 시간을 실시함으로써 자칫 고통스럽고 지겨운 음악 공부가 되지 않도록 교사는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지게끔 지도하여야 한다. 이때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반드시 한번에 한 개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도 교사의 요구가 학습자의 수준이나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면 오히려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아동의 실질적인 목표를 정립시키고 이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아동 위주의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항상 흥미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음악 전문가로서의 숙련된 연주 능력, 포괄적인 음악의 이해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음악의 소양을 지녀야 한다.

28) 이현자, 피아노 교육의 측면에서 본 교사의 자질, 음악교육, 1990, 겨울호 P.38.

또한 전문가로서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일의 보람,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군다나 가르치는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같은 이야기를 자상하게 수십번 되풀이할 수 있는 인내력과 학습자와의 인간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자의 인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교사는 안내자요 계획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아동이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즉 음악적 이해와 연주 기술이 내적으로 연결된 학습 곡을 선정하여 기초 단계에서부터 음악적 기반을 닦아 나갈 수 있는 터전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학습의 성과는 아동이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고무시킬 때 더욱 큰 성과를 이룬다. 교사는 기존의 교수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동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피아노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추구하며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써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어 풍요로운 정서 생활을 누리는 가운데 꾸준한 음악적 성장으로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 교재선택 및 유의점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는 교사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교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선택과 취급방법에서 보다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교재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학습에 적합한 것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며 교재는 쓰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목적 내용 방법에 일관성이 있을 때 비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에게 좋은 자극을 주어 풍부한 음악성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교재는 피아노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악교육면에도 큰

29) 김혜자, 「피아노 음악의 개성적 지도법」, 음악교육, 세광음악 출판사, 1986년 2월, P.75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원이나 학교 및 교습소의 경우 일률적인 교재와 교습방법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커녕 반복적인 연습으로 교육에 장애를 일으키기가 쉽상이다. 피아노 교본 중 바이엘은 필수교재처럼 사용하는데 한 가지 교재로 가르치기보다는 여러 교재들을 선택하여 장점들을 찾아 보완하며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교재에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재를 이용하여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흥미와 음악적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당연히 교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사는 아동의 조건이나 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에 가장 알맞은 내용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고 내용이 풍부하고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주제로 한 곡들을 소개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리듬, 가락, 화음, 빠르기, 악절, 악곡 등이 포함된 교재를 선택하여 아동의 개성을 이해하고 음악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재 선택이 지도자의 과제라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음의 배열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둘째, 생활환경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주제로 하여 내용이 풍부해야 한다.

셋째, 리듬·화음·선율·빠르기·구성·악절·악곡 등이 초보적인 견지에서 골고루 취급되어야 한다.

넷째, 순서나 질이 창조적인 견해에서 제시되고 이론 중심이 아니라 음악적 경험이나 표현기능 배경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재의 곡과 관련된 그림을 넣어 그 그림을 통하여 유아의 감각을 적중시키고 그림의 배치가 음악과 미술에서 볼 수 있는 심미적인 표현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국적인 리듬과 선율을 사용한 곡을 소개하고 우리의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의 초기부터 노래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교재에서도 취급되어야 한다.

30) 강명화, 「유아를 위한 피아노 교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피아노 교육의 첫 단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점 중에는 어떠한 교재를 선택 하느냐가 포함되어진다.

피아노 교육이 시작된 이래 너무나 외국의 교재 발달에 정보가 어두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150년 전의 교재들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이다.

바이엘은 독일음악가 바이엘(1803~1863, 독일의 피아노 주자·작곡가)에 의해 1850년 출간되어 아시아권 내에서는 미국 교육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메이슨(Lowell Mason, 1818~1896, 미국의 음악교육가)에 의해 1890년 일본에 전해지면서 우리 나라에도 파급되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이엘 체르니 하농 등의 책에 대한 진도 여부는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음악적 발전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간주되었고 지금도 많은 교습소에서는 이 책의 연습곡들을 끝내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을 지속시키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교습교재는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아동 음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목표에 합당하지 못하다.

현재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본을 살펴보면 바이엘, 알프레드, 톰슨, 베스틴이 있는데 이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yer의 문제점)

교본의 구성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해 가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양손의 독립적 힘을 기르는 예비연습부족과 조표설정이 급속도로 진전되며 #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아동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경향이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보완키 위해 이론적인 면에서 자체내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Page들이 삽입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므로 이론적으로 미흡하다는 평을 받게된다.

(Bastin의 문제점)

베스틴은 국내에 소개된 교본중 성공한 교본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교

재가 너무 많아 아동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갖게 하고 3·4급에 이르러서는 조성의 변화가 심해 아동들이 적응하기엔 너무 어려운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삽입되어 있는 곡들이 외국 곡들이라 우리 나라 아동들의 시각에서는 다소 외면되는 사례가 있다.

(Tompson의 문제점)

톰슨은 바이엘에 비해서 이론적인 면에 대한 설명이 많은 편이지만 기본 개념의 이해보다는 용어 설명적인 성격이 강해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간 중간 이론학습 정도를 점검하는 시험문제가 삽입되어 있지만 그 역시 용어의 암기 정도를 점검하는 수준이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등 대규모 음악양식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2부 형식과 3부 형식, 카논 등 보다 기본적인 음악형식을 학습하는 장이 있었으면 한다.

(알프레드의 문제점)

알프레드 교본은 중앙 C 접근법 여러 조성접근법, 음정독보에 의한 접근법을 절충한 교본이다. 피아노, 이론, 테크닉, 청음교본에 따라 마련되어 있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으나 피아노 교본과 테크닉 교본과의 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하다.

테트라 코드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너무 이론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있다.

3. 올바른 자세

1) 앉는 자세

모든 준비자세는 그 행위를 알맞고 성공으로 이끄는 첫단계가 되며 피아노 교육도 피아노에 앉은 학습자의 안정된 자세부터 익히게 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앉은 자세가 불안하면 청중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며, 또한 그 자세로는 피

아노의 미음(美音)과 다이내믹 창출에서 역할감당이 어렵다는 당장의 현실문제에 닥치게 된다.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살펴보자.

가. 몸의 중심 : 몸의 중심은 피아노의 중심이 되는 “E음”이나 “F음”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의자의 반이상 혹은 2/3정도까지 깊숙이 앉아야 하며 몸의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좋다. 이때 두발이 바닥에 닿아 몸의 무게를 받쳐주고 허리를 똑바로 펴서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건반과 몸의 거리 : 건반과 몸의 거리는 연주시 자연스럽게 양손을 교차하거나 유지하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면 되고 의자에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면 된다.

다. 의자 높이 : 의자높이는 각자의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의자의 높이를 자기 신장에 맞추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를 사용하면 좋은데 앉았을 때 팔꿈치와 피아노 건반의 높이가 거의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약간(약 16mm정도)낮은 것이 좋다. 작은 아동의 경우 발이 마루에 닿지 않으면 보조 발판을 사용하도록 하여 발바닥을 평행으로 약 10cm 정도 벌리고 언제든지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라. 의자와 피아노 사이 : 의자와 피아노 사이의 간격은 일어섰을 때 피아노와 의자 사이에 불편함 없이 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모양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손가락의 움직임만을 중심으로 손을 단련하여 연주하는 기법이었으나 낭만주의로 넘어오면서 손가락만의 연주법에 연주의 한계가 생겨 보다 손목과 팔을 자유롭게 쓰게 되었다. 결국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이완을 시켜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 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팔의 무게로 건반을 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올바른 피아노 앞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수의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손가락 중심의 낡은 주법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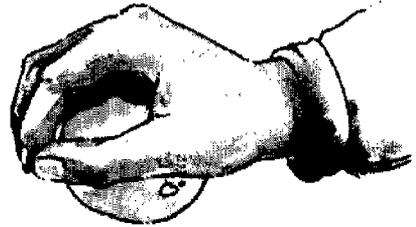
손끝이 뾰족한 것 보다는 뭉툭한 편이 좋고 손뚱으로 건반을 누른다는 느낌을 갖고 쳐야 하므로 손뚱이 길면 올바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능한 손뚱은 짧게 깎아야 한다. 큰 손을 넓은 음정의 코드나 옥타브를 치기 쉬운 반면 작은 손은 주옥같은 테크닉을 연주하기에 좋다.(〈그림 2〉 참조)

손을 건반 위에 놓을 때의 모양은 주먹을 펴 쥐고 난 다음 그것을 자연스럽게 펴서 작은 공이 하나 들어갈만한 정도의 모양으로 손을 펴고, 손가락은 손뚱이 바로 건반위에 서 있는 자세로 구부리면 된다. 엄지 손가락은 예외로 옆으로 자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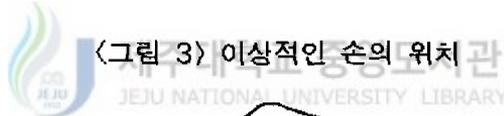
〈그림 2〉 손모양

같은 길이가 되도록 손을 구부려 보십시오.

손안에 비누방울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조심! 비누방울이 터지지 않게 부드럽게 쥐어야 합니다.



럽게 놓고 다섯손가락을 편한 형태로 건반 위에 제자리에 놓은 다음 살짝 눌러 본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 놓았을 때의 선의 모양은 가벼운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 이와 같은 손모양이 제일 좋다.(〈그림 3〉 참조)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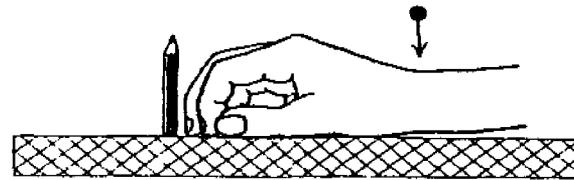


〈그림 3〉 이상적인 손의 위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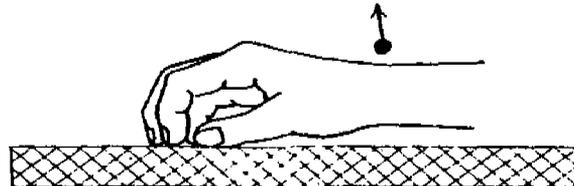
가.



나.



다.



31) 김혜자, 「피아노 음악」, 도서출판 청우,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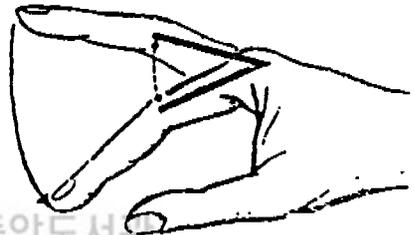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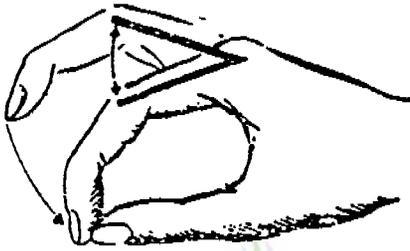
- ① 책상 위에서 1지를 바깥 쪽으로 하고 가볍게 손을 쥘다.
- ② 2~3~4지의 1관절에서 손끝은 수직으로 될 때까지 천천히 벌린다.
- ③ 손목을 자연스럽게 조금 올리면 연주하기 좋다.

빨리 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구부린 모양이 좋고 부드러운 음색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뻗힌 모양으로 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 두 가지 손의 자세

(빨리칠 경우)

(부드러운 음색을 원할 경우)



손등은 손목보다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되고 손가락을 너무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없는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림 5〉 손과 팔의 자세

좋은



좋지않음



좋지않음



모든 손가락은 손등의 관절부터 움직여지도록 해야되는데 이 손등의 뼈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손가락들은 모두 건반을 누른채 손가락만 드는 연습이 효과가 있다. 좋은 손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는 다섯 손가락이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훈련해야 한다.

엄지 손가락은 둔하고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다섯 손가락에 비해 빨리 치는데 적당하지 않으므로 기민성과 민첩성을 키우고, 둘째 손가락은 강하고 재빨라 중요한 손가락이 되며 가운데 손가락은 긴 손가락이므로 셋째 관절이 잘 움직여주며, 넷째 손가락은 약하고 둔하기 때문에 운지법에서도 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훈련을 통해 다른 손가락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다섯째 손가락은 근육이 없는 손가락으로 옥타브 치는데 주역할을 하므로 힘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들은 손가락의 힘이 약하므로 손가락 운동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깨와 팔 손목이 부드럽게 정착된 상태에서 손가락의 힘을 주었다 빼었다 하면서 기초운동의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첫 레슨

첫 레슨에서 아동이 어느 정도 피아노의 음에 대하여 자질이 있고 없는가를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실험) (1) 음의 높낮이 감각
 (2) 음의 길고, 짧은 음들의 감각
 (3) 음의 강약(음이 세다, 약하다)
 (4) 협화음, 불협화음 소리의 감각(좋은소리, 나쁜소리)

이러한 음악적 문제를 규칙적인 방법으로 Test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영국의 교육자인 Hetty Bolton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인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한다. 이런 인간적인 유대는 첫 번

레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³²⁾라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 레슨은 교사와 아동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을 편안하게 만든 후 시작한다. 미소짓는 걸 잊지 말라! 이러한 예비단계를 거친 후, 해야 할 과제와 피아노 책을 제시한다. 첫 레슨에서 강조해야 할 개념들은,

- ① 피아노에서 손의 위치와 자세.
- ② 오른손, 왼손 및 각 손가락 번호가 어떻게 붙여지는지.
- ③ 건반에서 방향을 가르친다. 위로 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이고, 아래로 간다는 것은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다.
- ④ 건반에서의 전반의 유형(2개 또는 3개의 검은 건반)

레퍼토리는 초보단계이므로 <그림 6>과 같은 5선이 없는 pre-staff 형태인데, 5선 없이 시보된 선율은 다른 새로운 개념들과 함께 악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음악을 연주하게 만들게 한다.



<그림 6> 5선 없이 기보된 선율

Teeter-Totter Fun! <시소 타기>

R.H.

L.H.

From *Technic, Primer Level* by James Bastien (Neil A. Kjos Music Company, 1986).

32) Hetty Bolton 「On Teaching the piano」, P.18

Bastien, James W.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1984, P.106

초보자에게 악보를 읽는 바른 방법은, 눈을 손과 악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악보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곡을 잘 배우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 ①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리듬을 이해하고 손뼉칠 것.
- ② 피아노 뚜껑을 닫고 손가락을 허공에서 연주하는데, 이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손가락 번호를 노래할 것.
- ③ 연주를 시작하기 전 양손의 위치를 찾을 것.
- ④ 눈을 책에 고정시키도록 할 것.
- ⑤ 연주하는 동안 손가락번호나 가사를 노래부르며 끝까지 칠 것,

첫 레슨에서 이론은 음표 길이를 아는 것과, 어떤 음표가 길고 짧은지 정도만 알면 된다. 테크닉은 다음 예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의 조정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Three Little Pigs (세 꼬마 돼지)

R.H.					
	Three pigs are out	play - ing	in the	sun.	
	Watch them chase each	oth - er	hav - ing	fun!	
L.H.					

From Piano, Primer Level by James Bastien (Neil A. Kjos Music Company, 1985).

5. 독보력

독보는 문자 그대로 악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악보는 본질적으로 음악적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초적 조직이며, 그 습득이란 악보가 의미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즉, 어떤 기본적인 음악적 사고를 표현하는 것과 그것을 읽는 것이 두 가지 기초적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쉽게 말하자면 악보에 기록된 악상기호, 손가락 번호, 선율선을 이루는 음과 음의 진행, 다양한 리듬 등을 한눈에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악보를 한눈에 이해하기란 아동들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기초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독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피아노에 있어서 어느 수준이 되었건 일단 작품에 대하여 누구나가 직면해야 할 과제이므로 피아노 학습과 연주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길러져야 하는 것이 독보이다. 그러므로 독보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독보를 습득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항상 실제의 음악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가창을 통하거나 기악을 통해서 음악적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독보는 피아노 레슨 과정의 첫단계이므로 독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첫째는 악보에 대한 이해로 음악이론에 기본이 되는 음표의 길이나 쉼표·박자·리듬·멜로디·음자리표·조표·음의 강약·템포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둘째는 리듬 훈련이다.

리듬은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이다. 리듬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음의 연속적 운동현상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시간의 질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즉 리듬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 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어릴 때일수록 모든 감각적 발달이 빠르게 전개 되므로 리듬 훈련 역시 조기에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리듬감의 기초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가 음악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음악 속에 흐르고 있는 몸의 움직임의 형태, 즉 리듬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음악에 사용되는 리듬을 별로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으므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

연습 방법으로는 어떤 소설에서 리듬만을 뽑아 손뼉 치기를 한다던지 혹은 발구르기를 해서 반복 연습을 시킴으로써 아동들이 리듬감을 익히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리듬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형태로 두들기거나 셈하듯이 리듬연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런 연습의 반복은 기계적이며 어느 일정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8〉 리듬훈련 예표

동요리듬 (4박자, 2박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삐약 삐약 병아리



쟁반 같이 둥근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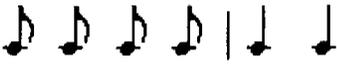
햇별은 짹짹



달달 무슨달



모래알은 반짝



어디어디 떴나(남산위에 떴지)



예쁜 병아리

전래동요 (4박자) - 여우야 여우야 -



여우야 여우야 (죽었니? 살았니)



(뭘하니 - 니, 살았 - 다)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멧쟁이



밥먹는다 무슨반찬(지지배배 지지배배)



개구리 반찬에

〈그림 8-1〉 리듬훈련 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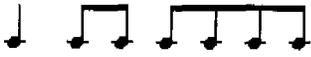
동요리듬(꼬마인디안) 4박자



한꼬마 두꼬마(열꼬마 인디안)



세꼬마 인디안



네꼬마 다섯꼬마



여섯꼬마 인디안(아홉꼬마 인디안)



일곱꼬마 여덟꼬마



안 - -

뚝악리듬(4박자)



쿵쿵 덩기 더러



덩더쿵 덩더쿵



쿠웅 덩기 더러



덩기덩기 더쿵더



쿵쿵 덩기덩기



쿵덩기 쿵덩기



덩기덩기 더더쿵



덩기덩기 더 쿠-응

<그림 8-2> 리듬훈련 예표

언어리듬(4박자, 3박자, 2박자)



빵 - 까 빵 -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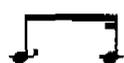
빠가바가 빵 -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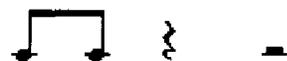
궁자라 작작 빼약 빼약



뽕 - - 핏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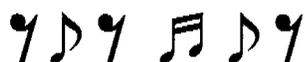
앞으로



이놈! -



앗뜨거워 앓뜨거워



앗뜨 앓뜨거워



앗뜨거워라



밤 밤





대추 대추



꽃 - 감



취-

셋째는 건반을 보지 않고 연주하는 것이다.

악보와 건반이 위와 아래에 떨어져 있어서 아동들은 시선이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먼저 피아노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피아노의 중앙(열쇠구멍)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 ‘다’를 중심으로 익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손을 ‘다’음 즉 ‘도’를 기준으로 건반을 보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음을 누르게 하여 갖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건반에서 각각 다른 음정들의 도약 진행을 해봄으로써 음의 방향이나 진행감을 느끼게 한다. 그 다음으로써는 눈을 책에 고정시키고 건반을 보지 않게 하여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치도록 유도하며 어느 정도 감각을 익혔을 때는 손가락 번호를 맞게 건반을 누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독보 훈련으로 아동들이 어떠한 곡을 접함에 있어 두려움 없는 적극적인 태도로서 받아들인다면, 피아노 학습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의 독보교수법에 대한 경험은 이러하다.

처음 아동을 지도할 때는 그냥 악보를 보고 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럴 경우 독보를 통해 박자나 조성, 리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는커녕 음정조차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만족해 할만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이러하다.

아동들에게 다른 악보를 처음 보게 할 때는

- ① 먼저 악보를 보고 몇 박자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 ② 박자가 파악되면 그 박자에 맞게끔 한마디를 몇개로 해야 할지를 짚어보게 한다.
- ③ 조성을 보게 한다.
- ④ 그 다음에 음정을 박자, 리듬, 쉼표를 지키면서 따라 부르게 한다.

이 과정을 실행한 후,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게 할 때는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본인 이외에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실행해본 결과도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 방법을 권하고 싶다.

6. 시창과 청음



1) 시창

초견시창이란 주어진 선율에 따라 초견으로 바르게 악보를 읽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고정도법이든지 이동도법이든지 상관없다.

아동들은 악보를 보고도 어떤 리듬인지 어떤 가락인지 파악을 잘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음악교육과 피아노 교육이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며, 우리사회의 피아노 교육이 포괄적으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 테크닉만을 중시하는 단편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창은 음정과 리듬을 바르게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시창으로 소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면 노래는 몸을 통해 직접 소리를 내기 때문에 노래할 때 아동들은 Staccato, Legato, Slur, Accent들의 차이점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며, 그 차이점을 분명히 느끼고 건반에서 연주하게 되면 그 소리에 의미가 담겨지게 될 것이다.³³⁾

시창을 함으로써 리듬에 대한 개념도 더욱 확실해질 것이며 노래할 때 음과 음사이의 높낮이를 느낌으로서 음정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노래를 하면서 어디서 숨을 쉬는지 파악을 하면서 Phrasing 감각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

시창의 올바른 훈련은 피아노교육이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청음

청음훈련은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아니스트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부분은 듣는 것이다. 잘 들을 줄 알고 좋은 귀를 가진 사람만이 좋은 음악을 구사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들도 청각이 뛰어나게 되면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고 화음의 종류와 특징, 곡의 변화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청음훈련은



첫째, 음정의 정확한 인식이다.

둘째, 리듬의 정확한 판단력이다.

셋째, 음정과 리듬을 오선 위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훈련한 뒤에 아동들에게 간단한 단선율과 가락을 받아 적게 하여 음과 리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귀는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자기자신의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다.

청음은 선천적인 문제임에는 의심할 필요도 없지만, 많이 듣고 노력할수록 발전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청음훈련을 단지 리듬과 멜로디에서만 그

33) Julie McIntosh Johnson, 「Sight - singing」, clavier, 1984, P.6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밑바탕으로 템포, 조성, 프레이징, 악상표현까지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좋은 음악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음훈련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시창과 청음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는데, 시창과 청음은 불가분의 관계로 어느것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음을 들어야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그 음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으로써 음을 보고 소리낼 줄 알아야하고 들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창과 청음은 같이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

7. 초견

초견이란 곡을 미리 연습하지 않고 처음보고 연주하는 것으로 초견을 잘하는 능력이란 음악가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이다. 초견능력의 향상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급선무인데, 왜냐하면 초견은 한 작품을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초견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음악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능력은 기억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무엇이 다음에 올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음악적 기억력이 최상으로 발달되어졌을 때 단지 음표뿐만 아니라 악보 상에 있는 모든 음악적 표현까지 즉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초견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살펴보면,

첫째, 작품전체에 대한 즉흥적 반응을 깨닫게 한다.

둘째, 건반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킴으로써 촉각적 또는 동적 기억력을 돕는다.

셋째, 음악의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한 기억력을 가동시킴으로써 한 곡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반응하게 된다.³⁴⁾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의 음들을 패턴으로 묶고, 그 패턴들을 음악적인 사건으로 만들며, 그 안에서 음악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연주가는 자신이 연주하는 작품의 심장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초견능력은 새로운 곡을 접하면 접할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다.

8. 창작 및 즉흥 연주

모든 아동들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다.

어릴 때 아동들이 누구의 도움이나 학습 없이도 혼자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시와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레코드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워하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일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능력이 아동들에게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점차 줄어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입식 교육과 교사에 의존해야만 하는 커리큘럼의 문제일 것이다.

물론 피아노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곡의 표현에 있어서 교사가 아동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이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등 충분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지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자는 아동들에게 창작과 즉흥 연주방면을 이끌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소리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늘의 천둥소리, 구슬 구르는 소리,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 등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피아노 건반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작은 주제를 쓰고 그것을 변주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34) 백낙정(역), Seymour B와 nstein, 「with your own Two Hands」, P.6

가정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훈련은 창조력을 길러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부분의 사실 표현에 있어 표현력을 길러 줄 것이다.

교육의 역할이란 원래 아동들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북돋아 주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창조력의 정도는 아동들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는 각 아동자신의 가장 큰 잠재력을 발달시키고 그가 느끼고 있는 음악적인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9. 테크닉 훈련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테크닉’이란, “모든 예술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법이나 세부적인 처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어린 아동에게는 음색의 균형, 명쾌함 등을 적절히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사는 처음부터 바른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테크닉의 기초를 아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크닉은 음악 프로그램 중 단지 한 요소이다. 이 장에 제시된 각 항목은, 레슨 시 피아노를 바르게 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레슨에 삽입할 수 있다.

비록 테크닉에 관한 많은 책이 쓰여졌지만, 대부분상급 수준에 관한 것들 뿐이다. 팔의 무게·앞팔 회전·완화 등의 어휘는 모든 수준의 아동에게 해당하는 말이나, 초보자는 좀더 기본적인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초보자를 위한 위한 테크닉은 건반에서의 조절과, 조정에 관계된 간단한 개념으로 중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도 어린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첫해의 레슨 기간 안에 초보자는 레가토나 스타카토·프레이징·기본적인 손가락 조종 같은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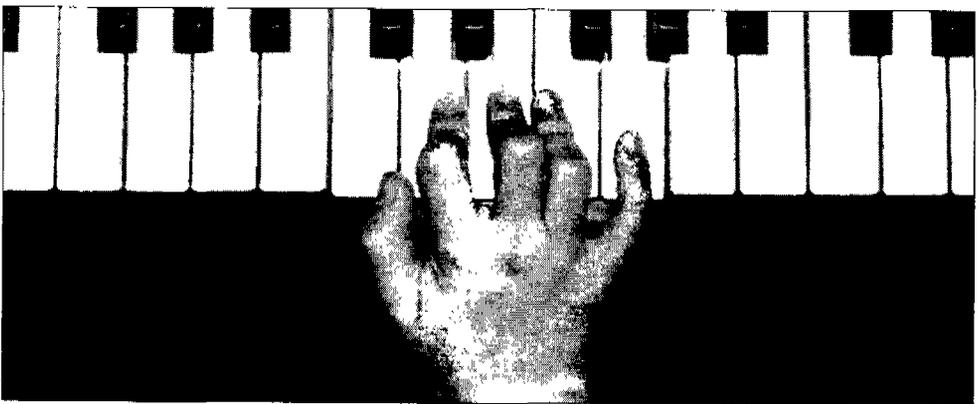
비록, 테크닉 항목에 대한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들이 있을지 모르나 다음의 항목들이 초급 아동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한다.³⁵⁾

- 1) 자세와 손의 위치.
- 2) 팔 떨어뜨리기(arm drops), 큰 근육 움직임.
- 3) 레가토 터치.
- 4) 스타카토 터치.
- 5) 선율과 반주의 균형.
- 6)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의 상하운동.
- 7) 3도의 레가토

1) 자세와 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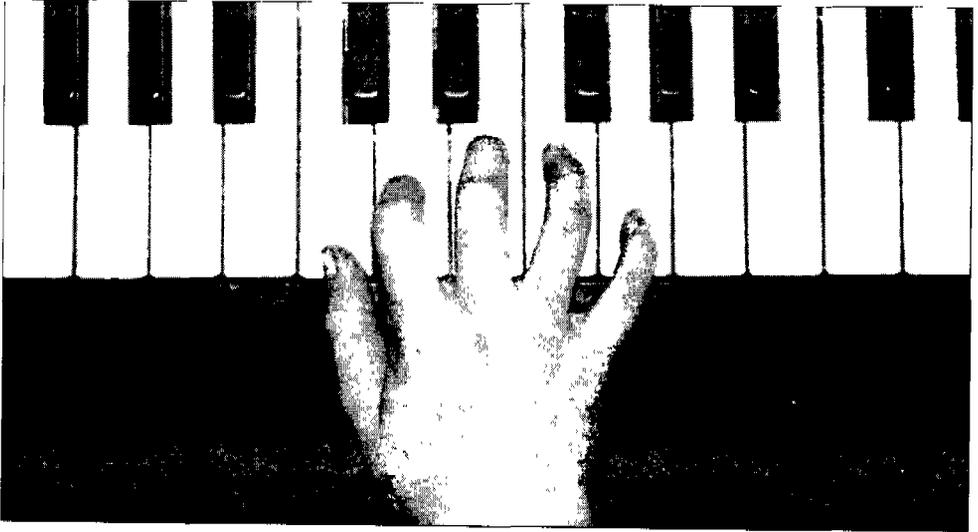
자세나 손의 위치, 높이, 건반으로부터 거리 등의 문제는 지난 장에서 논의 하였다. 바른 위치에 앉을 수 있어야 되며, 약간 건반쪽으로 기대는 것이 피아노 치기에 좋다는 것을 가르치라. 손·손목·앞팔은 똑바로 직선을 이루어야 하며, 손가락은 약간 구부러져야 한다.

〈그림 9〉 잘못된 손가락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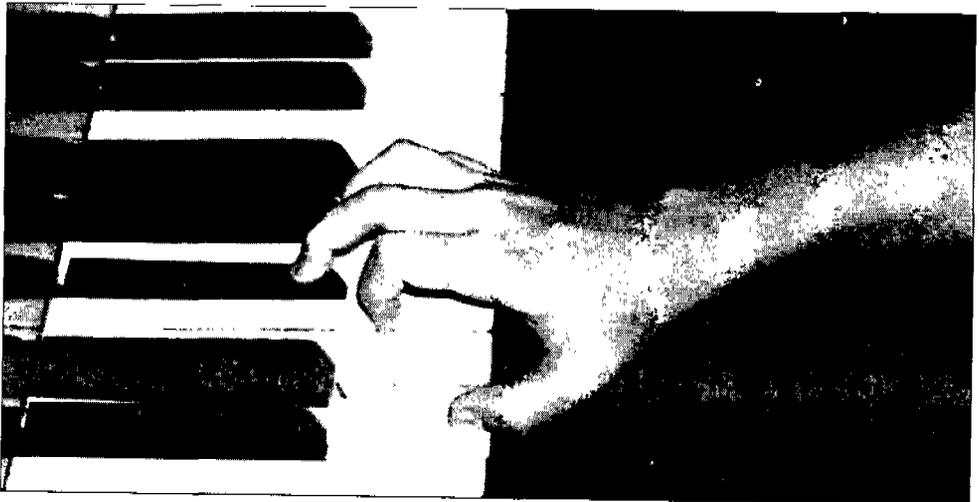


35) 송지혜(역)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음악춘추사, 1994,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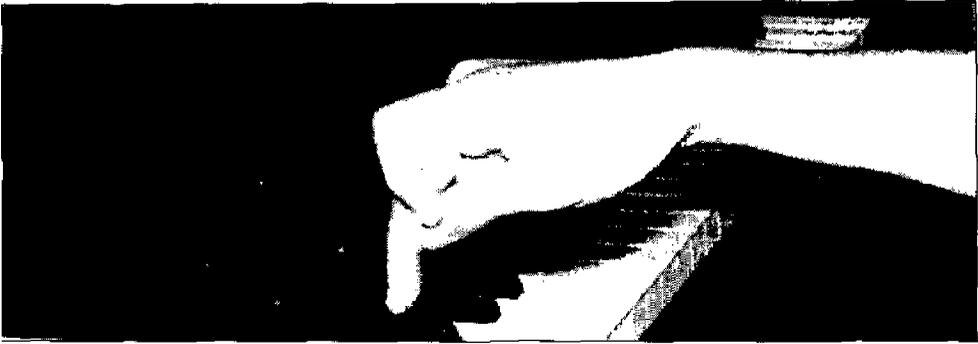
〈그림 10〉 바른 손가락 위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1〉 3화음을 치는 손의 바른 위치



〈그림 12〉 건반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버틴다.



어린이들은 특히 손가락의 힘이 약하다. 1번손가락에서 2·3·4·5번손가락으로 가면서, 처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구부린 손가락 형태를 발달시키면 3화음을 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사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바른 모양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세·손의 위치·손가락 구부리기 등을 강조하면서 계속 지적해 주어야 한다. 레슨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가장 강조할 점은 바른 버릇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림 13〉 건반에서 손가락 세우기



2) 팔을 떨어뜨림(Arm Drops)

어떤 교사들은 아동에게 처음에는 큰 근육들을 사용하게 하고, 다음에 손가락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작은 움직임으로 집중해 가도록 한다.

팔 내려뜨림은, 조성의 이름들을 배울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가락을 받치고, 팔의 앞부분을 건반 위로 올려 준다. 그러면 손가락은 팔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건반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이 어떻게 해야 손가락을 구부린 형태로 유지 시키는지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갖게 한다.³⁶⁾

3) 레가토 터치

레가토의 기본적인 타건법은, 건반을 누른 후 다음에 칠 건반을 누르려 하는 순간 처음 친 건반을 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어떤 아동들에겐 쉽게 터득되는 반면, 어떤 아동들은 어려워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한 손가락의 조정력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발달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나 초보자에게 이 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레가토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아동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걸음을 걸을 때 한 발이 내려가야 다른 발이 올라갈 수 있듯이, 한 음이 연주되고 다음 음을 연주할 때는 처음 음을 두 번째 음이 연주될 때까지 잡고 있다가, 두 번째 음이 연주되면 첫 번째 음을 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레가토의 타법이다. 즉, “건반 위에서 걷는 듯이”로 이해시킬 수 있다.

레가토 연주시 흔히 발생되는 두 가지 잘못된, 첫째는 두 번째 음을 누른 후까지도 첫 번째 음을 계속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손과 팔이 위아래로 흔들거려서 고르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레가토 타건법에 관한 공부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음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즉, 1 2 1 2 1 2 3 2 3 2 등으로 손가락을 바꾸어가며 각 손으로 공부한다.³⁷⁾

36) 상계서 P.11

37) 상계서 P.111

〈그림 14〉 레가토 타건법을 위한 초보 훈련

a.

1 2 1 2 1 1 2 1 2 1 동
 2 3 2 3 2 2 3 2 3 2
 3 4 3 4 3 3 4 3 4 3
 4 5 4 5 4 4 5 4 5 4

b.

1 2 1 2 3 2 3 4 3 4 5 4

다음에는, 다섯손가락 위치들을 느린 템포로 흰건반에서 위아래로 연주한다

4) 스타카토 터치

아동들에게 스타카토를 가르칠 때에는, 나이 많은 아동들을 가르칠 때와 약간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각 손가락을 위에서 떨어뜨려 탄력성 있게 튀어오르게 하는 것보다, 손가락을 건반 가까이 놓아 밀어올리는 느낌을 갖게 가르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³⁸⁾

〈그림 15〉 흰건반에서 다섯 손가락 위치를 사용한 레카토 연습

동

〈그림 16〉 스타카토 터치에 대한 초보 연습

etc. 동

38) 상계서 P. 112

일단 스타카토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 스타카토 연습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고안해 낼 수도 있다. <그림 16>은 그러한 예이다.

5) 멜로디와 반주부의 균형

각 성부를 충분히 컨트롤하여 균형 맞추어 연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아동이 잘 훈련되었는지 쉽게 알아 내게 된다. 이 수준에서 성부 처리나 음의 균형이란, 한 손을 다른 손보다 더 크게 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양손간의 차이를 '들올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 준다.

<그림 17> 선율과 반주부의 균형에 대한 공부

Keep Your Balance!



From *Technic, Level 1* by James Bastien (Neil A. Kjos Music Company,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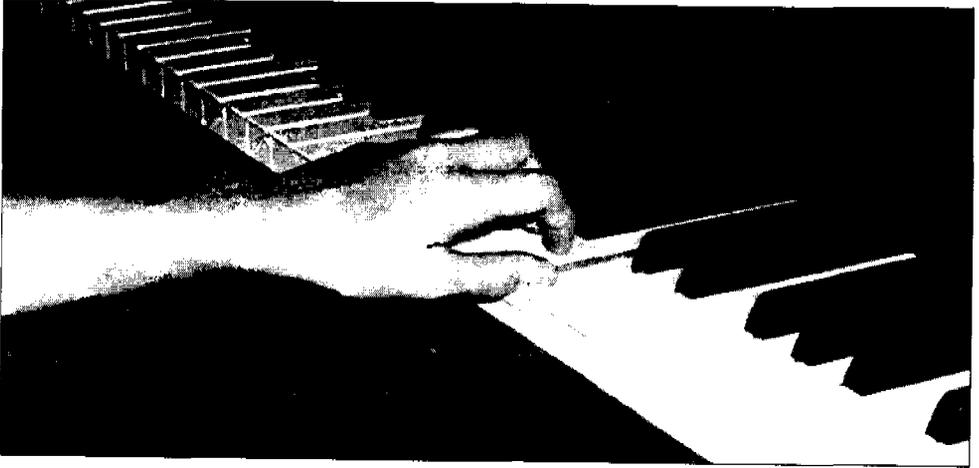
6)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의 상하운동

피아노에서 프레이징의 표현을 손과 손목·팔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음줄을 잘 표현하는 기술은 아동이 적절한 동작을 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정 능력을 가질 때, 대개 첫 학기의 마지막 정도에 가르칠 수 있다.

아동에게 두 음 사이의 이음줄(two-note slur)을 연주하는 모양을 시범 보인다. 건반에서 손목을 약간 낮추어 떨어뜨리고 나서, 손목을 약간 높여서 건반에서 손을 떼는 모양을 보여 준다. 이런 과정을 표현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아래-위(down-up), 떨어뜨리고-풀어 주고(drop-release), 떨어 뜨리고-굴린다(drop-roll: 피아노를 향해 굴리면서 동시에 들어 올린다는 뜻). 화살표를 사용해서 내리고-올리

는 모양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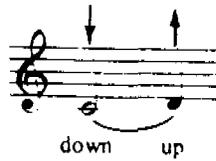
〈그림 18〉 손목을 낮게 한 위치



〈그림 19〉 손목을 높게 한 위치



〈그림 20〉 손목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화살표



39) 상계서 P.113

손목을 올리는 것은 two-note phrase나 어떤 프레이즈의 끝부분 어디서나 같다. 긴 프레이즈가 나올 때는 프레이즈 안에 있는 음들을 성악적인 선율의 표시로 생각하여 그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을 누른 후에 숨을 쉬도록 한다. 피아노에서 손이 올라가면, 레가토가 끊어지고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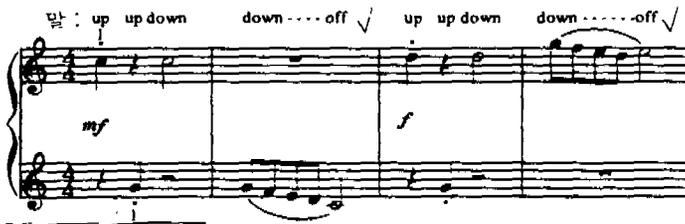
<그림 20>에 제시된 것처럼 이음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연습곡을 교사가 고안할 수도 있다. 이음줄의 첫음은 약간 크게 치고, 마지막 음은 약간 작게 쳐야 한다. 아동이 각 이음줄의 마지막 음을 “띄우듯이”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각 이음줄 사이에서는 소리가 끊어지도록 가르친다.⁴⁰⁾

<그림 21> 이음줄 연습



첫해에 배우게 되는 곡 중 많은 곡이 스타카토와 레카토 터치를 가지고 있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이 곡에서 사용하는 손의 모양에 대해서 크게 말하도록 하게 한다. 즉 스타카토는 “위로”(up), 긴 음이나 프레이즈에서는 “아래로”(down), 프레이즈의 끝부분에서는 “떼어”(off)라고 말하게 한다<그림 19>. 음악기호들을 말로 나타내고, 손동작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인쇄된 악보에 있는 표시를 따라 연주하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기술은 너무 중요하므로, 아동들이 악보에 쓰여진 것을 자동적으로 연주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림 22> 손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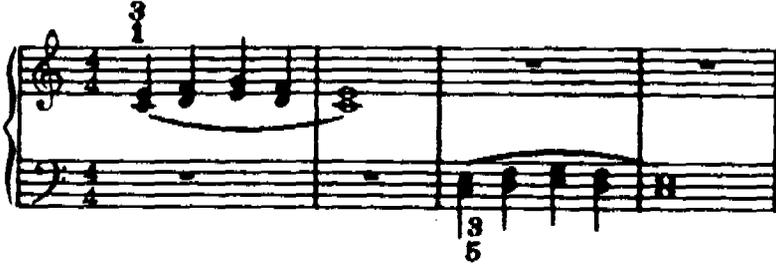


40) 상계서 P.114

7) 3도의 레카토

첫해에 3도의 레가토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첫해 과정의 공부에서 가끔 3도의 레가토가 발견될 것이다. 교사는 3도의 레가토 연습을 위한 연습곡을 고안해서 첫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3〉 3도의 레가토 연습곡



〈그림 24〉 3도 레가토에 대한 손의 위치 중 처음 3도



〈그림 25〉 3도 레가토의 손 위치 중 두 번째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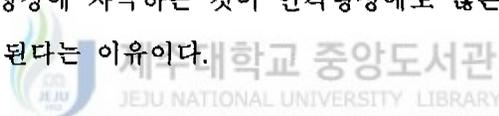
3도의 레가토를 연습할 때, 아동은 첫 번째 3도의 겹음을 분명히 연주해야 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대로 다른 손가락은 올려진다. 만일 다른 손가락들이 충분히 올려지지 않는다면 실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 음들을 치자마자 처음에 친 음들을 들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가토 선율이 흐려지지 않게 된다.⁴¹⁾

이상과 같이 초보 피아노 테크닉 연주 방법을 제시하였다.

41) 상계서 P. 116

V. 결 론

오늘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윤택한 생활문화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피아노 교육은 음악교육의 대명사로서 음악교육의 주요부분으로 인식되고,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면서 많은 아동들이 음악 학습에 첫 입문을 피아노로 선택하는 것은 피아노가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조기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손가락 움직임으로 소근육운동의 발달로 IQ를 높이고 정서적 EQ도 높아진다는 과학적 검증으로 두뇌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또, 아동들이 교양이나 취미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피아노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의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유년기에 지능개발과 함께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아동들의 정신과 신체적 성장에 자극하는 것이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즉,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이다.



피아노는 조기 음악교육 중에서도 중심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 조기교육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잇점은 다음과 같다.

1. 음감이 빨라지고 절대음감을 가질 확율이 높다.
2. 근육의 이완상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와 손 모양의 기초를 익힐 수 있으며 유연성을 배울 수 있다.
3. 음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기 때문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익힐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4. 많은 명곡들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피아노 학습을 위한 환경 및 시설의 미비.

둘째, 다양한 음악교재 및 교구의 부족.

셋째, 제대로 교육받은 교사의 부족.

넷째, 학부모의 음악교육의 자질과 관심도 등.

그래서 본 논문은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부모가 인지하고 실행해야 할 교육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방안과 음악이론과 실기가 종합된 체계적인 피아노 학습지도로 승화하여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이 가능한 질 높은 음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피아노 조기교육은 음악적 멜로디와 프레이즈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6·7세 경에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조기교육의 실시로 교육연령이 낮아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아동들이 피아노를 다루고 있다.
3. 초등학생들은 저학년에서는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많은 과외활동과 효율적이지 못한 교수법으로 흥미를 잃고 도중에 다수가 피아노를 그만 두고 있다.
4. 부모들이 아동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는 강압적이고 진도 나가기만 하는 교육은 아동의 싫증과 흥미를 잃어 효과를 저하시킨다.
5. 피아노 교육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교사와 음악적 능력을 갖춘 부모와 아동이 하나가 되어 피아노 교육의 흥미를 줄 수 있는 지적, 정서적으로 올바르고 성숙한 가운데 성취력 추구의 학습능력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6. 학습실의 환경은 음악적인 교구, 방음장치, 그룹레슨실, 이론공부실, 개인연습실, 무대 연주실 등을 갖추고 설비가 잘 된 좋은 환경에서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아동의 성장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화 시킬 수 있는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하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지시키는 교육에 임해야 한다.
8. 교사는 피아노 학습에서 가락이나 화음 등의 음악적 매력에 반응하는 감성을 길러주어 음악에 대한 내면으로 부터의 활동을 바르게 표현 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흥미를 유발 시키는 것과 음악으로 인한 풍부한 정서 함양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9. 교사는 연주실기 뿐 아니라 이론, 음악서적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교육에 있어서 음악적 측면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성실한 자세와 교육자의 사명감을 항상 가져야 하며 교육철학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0. 피아노 조기교육에서 기본적인 이론과 태도를 이해시키고 손가락 연습, 박자와 리듬, 스타카토, 레가토, 음계 화음 등에 관한 학습을 정확하게 익혀주어야 한다.
11. 앉는 자세에서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보면대를 정시하면서 어깨, 팔, 손목, 손가락 그 밖에 모든 필요없는 힘을 빼고 편하게 앉아서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교사는 학습자에게 몸 전체로 음악을 하도록 하고 음악적 표현을 느낀 감정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2. 교사는 실기 위주의 연주 기교와 레퍼토리 중심의 단순 기능 위주의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초견, 반주, 조옮김, 연주, 시창, 청음, 즉흥연주 및 창작의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총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아동 스스로가 음악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 모색의 피아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피아노 교육의 지도방법이 개선되어 피아노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음악을 이해하고 생활화하여 마음으로부터 즐길 수 있는 심미적 능력과 아름답고 고운 심성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하며, 정서적으로 올바른 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모, 교사, 학습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인교육을 위해서 좀더 단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로 음악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송정이(1986),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 박영수(1988), 「피아노 주법 연구」, 세광음악출판사
- 김혜자(1986), 「피아노 음악의 개성적 지도법」, 세광음악출판사
- 박찬석(1985),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설정환(1995), 「3단계 시창, 청음」, 예성음악사
- 이홍수(1994),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유덕희(1973), 「음악 교육학개론」, 대구 학문사
- 이봉기(1982), 「일등 제자를 만드는 피아노 지도법」, 작은 우리
- 이성삼(1982), 「음악교수법」, 세광출판사
- 유덕희(1983),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음악교육론」, 개문사
- 권기택, 김성남(1981), 「피아노 학습과 지도법」, 현대악보 출판사
- 정원석·이상노·이성진 공저(1988), 「현대교육 심리학」, 교육출판사
- 이용일(1989), 「음악 교육학 개설」, 현대악보출판사
- 안종배(1991), 「음악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2. 번역문헌

- 이데유미코(역), (1992), 니카오카 도시오(저), 「피아노 10분지도법」, 세광음악출판사
- 송지혜(역), (1994), 제임스 베스틴(1994),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음악춘추사
- 안미자(역), 맥스캠프(1995), 「피아노 연주법 - 교수법 철학」, 이화여대 출판부
- 조윤용(역), Josef Hofmann(1989), 「문답식 피아노 교습법」, 삼호출판사

- 정정식(역), James W. Bastien(1982), 「피아노 교수법」, 세광출판사
- 범영숙(역), Peter Heilbut(1994), 「효율적인 그룹레슨」, 음악춘추사
- 김수경(역), (1995), Joan Last, 「영 피아니스트 교수법」, 음악춘추사
- 양일용(역), (1994), Leonhard Deutsch, 「피아노 초견법」, 태림출판사
- 조흥기(1994), 에르제벳 쇠니, 「코다이 음악 교수법」, 도서출판 다라
- J.Mursell(1989),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세광 음악 출판사

3. 논 문

- 유영명(1973), “음악적 능력에 미치는 조기교육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 최향엽(1975), “피아노 초보학습에 있어서의 교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 강명화(1978), “아동을 위한 피아노 교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경숙(1990), “피아노 지도법에 관한 연구고찰”,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지현(1993), “피아노 연주방법 중 음악적 표현과 손가락 테크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미자(1994), “아동의 피아노 지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 배은연(1992), “피아노 학원에서의 기초 이론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 박현주(1985), “어린이 피아노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경(1990),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효과적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서미(1996), “조기 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석사학위 논문

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미(1996), “초등아동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 김경현(1993), “아동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교수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 박옥경(1993), “조기 피아노 교육의 올바른 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 신임숙(1988), “피아노 조기교육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 안현숙(1998),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화경(1998),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지도방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명아(1994),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피아노 교육”,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윤경(1997), “취학전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후작(1991), “효율적인 초기 피아노 교육법”,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4. 기 타

- 금수현(1980), 「표준음악사전」, 월간 음악출판부
- 국민음악연구회(19기),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 신진출판사 편집위원회(1974), 「음악대사전」, 신진출판사
- 세광(1992~2000), 「세광피아노」, 세광음악 출판사
- 음악춘추사 편집부(1994~2000.2), 「피아노 음악」, 음악춘추사
- 상지원(1994~ 2000. 5), 「피아노 교육신문」

<Abstract>

Necessity of Piano Education for Children and a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Piano*

Kim, In-A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un-Ki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hen children play piano, their mental capacity as well as good emotion is enhanced because playing piano causes the fingers and muscles of the players to move and thus stimulates the physical and mental growth of childr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necessity and basic knowledge of piano education for children and to survey the environments,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piano and the problems of piano education for them at Cheju-shi.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Piano education is central to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Piano education helps children have a faster musical sense and good chance of the absolute pitch, learn and express the beauty of music since they have good feeling for music while they play piano, and study many excellent pieces of music.

Presented are the essentials that teachers and parent should acknowledge the piano education for children. Some of essentials are listed below.

1. The best age to begin to learn how to play piano is 6 to 7 years of age.
2. Most children know how to play piano when they enter a primary school .
3. Younger pupil of primary school tend to play piano hard. However, many older pupil cease to play piano because of their many other activities and loss of interest due to improper teaching method.
4. If parent force their children to learn how to play piano without considering the ability of children, children lose interest in the learning of piano and thus learning efficiency decline.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음악교육전공)에 재학하고 있는 김인에입니다.

본 설문지는 아동들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피아노 음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작성을 위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이며 논문작성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상 :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사 및 음악학원 강사
피아노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학부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인에 올림.

○ 교사 및 학원강사 해당 설문지

1. 조기 피아노 교육의 시기는 어느 때가 적당한가?
① 5세 ② 6세 ③ 7세 ④ 8세 ⑤ 8세이후
2.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아동들에게 첫 시간부터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피아노 실기 ② 악전 및 솔페이지즈
③ 실기와 악전모두 ④ 상기 모두
3. 피아노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는 학원에서의 시간은?
① 30~40분 ② 40~50분
③ 50~60분 ④ 1시간 이상
4. 피아노 지도시 아동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① 10~20분 ② 20~30분
③ 30~40분 ④ 40분 이상
5. 피아노 학습중인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초견연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안한다. ② 초기에는 조금 했으나 계속하지 않는다.
③ 계속한다. ④ 가끔한다.
6. 이론지도와 실기의 시작은 어느 정도?
① 이론과 실기를 같이 시작한다.
② 이론지도 2~3일 후에 실기를 시작한다.
③ 이론지도 1주일 정도에 실기를 시작한다.
④ 이론지도 1주일 이상이 지난 후 실기를 시작한다.
7. 암보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안한다. ② 필요에 따라 한다.
③ 지속적으로 한다.
8. 아동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① 노래 부르기 ② 손뼉치기
③ 이야기 나누기 ④ 기타

9. 초견, 슬페이지즈, 암보, 조옮김 연주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이유는?
 ① 시간의 제약 ② 이론적 바탕 부족
 ③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④ 뚜렷한 교수 방법 및 교재의 부재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초 교재는?
 ① 바이엘 ② 알프레드 ③ 클래스 ④ 톰슨 ⑤ 기타()
11. 피아노 조율은 얼마만에 하는가?
 ① 6개월 ② 1년 ③ 1년 6개월 정도 ④ 2년이상
12. 피아노 방음에 대한 방법은?
 ① 칸막이 벽 설치 ② 피아노 자체 방음
 ③ 실내벽에 설치 ④ 기타()
13.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들을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



○ 학부모 설문지

1. 조기 피아노 교육의 시기는 어느 때가 적당한가?
 ① 5세 ② 6세 ③ 7세 ④ 8세 ⑤ 8세 이후
2. 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했으면 하는 시간은?
 ① 30~40분 ② 50분~1시간
 ③ 1시간~1시간30분 ④ 1시간 30분 이상
3. 왜 피아노 교육을 시키십니까?
 ①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②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③ 두뇌개발에 좋을 것 같아서

④ 아이가 원해서

4. 왜 피아노 교육을 일찍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양손 사용으로 인한 두뇌개발을 위해서

② 아이의 정서와 감성교육을 위해서

③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④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5. 피아노교육이 전인교육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옳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르겠다.

6. 피아노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실 계획인가요?

① 초등학교까지만 ② 중등학교까지만

③ 본인이 원할때까지 ④ 기타

7. 피아노 교육 중학교의 음악 성적은?

① 만족하게 좋아졌다. ② 좋아졌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르겠다.

8. 아동들의 피아노발표회는 얼마 간격의 개최가 좋을까요?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안하는게 좋다.

④ 교육자측(학원 등)에서 알아서

9. 피아노 교육의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음악과외 등의 선택 우선 기준은?

① 교사의 실력(학력) ② 시설 ③ 수강료 ④ 거리

10. 가정에서 음악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① 피아노 진도 체크 ② 함께 노래를 부른다.

③ 함께 악기 연주를 한다. ④ 그냥 지켜본다.

11. 피아노 학습실의 시설 환경은?

① 연주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② 모든 음악적인 교구, 방음장치, 그룹레슨실, 이론공부실, 개인연습실, 무대 연주실 등이 있어야 한다.

